

소통으로 협력의 중요성 일깨운다

전북중기청, 오늘 청소년 비즈쿨 연합 캠프 개최 '같이의 가치' 배우는 실천 창업 체험·역량 강화 등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전북지역 창업선도대학, 전북비즈쿨교사협의회와 공동으로 비즈쿨 참여 고등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14일까지 제주항공우주호텔에서 청소년 비즈쿨 연합캠프 및 교사 연수를 진행한다.

행사는 신선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고등학생 60명 및 중등 교사 30명이 참가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창의적 아이템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지도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행사 내용은 고등학생 연합캠프는

팀을 나눠 '몸으로 말해요' 퀴즈 및 창업 상식 '도전 골든벨'을 시작으로 3D 사출물을 활용한 캐릭터 만들기 및 미니 공기청정기 제작 등 Making 체험을 한다.

아이디어 고도화 과정을 거쳐 시제품 제작 후 모의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 우수 팀을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미래 CEO에게 자양분이 되는 2019년 기술 트렌드 및 크라우드 펀딩 특강도 함께 진행된다.

교사연수는 운영사례를 발표하고, 4차 산업 혁명 트렌드 및 창업 아이디어 발상 전환 등 CEO 특강을 정취한

후 분임토의를 진행한다.

더불어 카카오톡 등 산업체를 견학하고, 건강한 마인드 갖기 등 특강으로 청소년 지도를 위한 마음다짐 훈련을 한다.

행사에서 주목할 점은 크라우드 펀딩 진행으로 우수 작품을 선정하는 방식 외에도 소통과 화합의 네트워크 프로그램이다. 지역 청소년뿐만 아니라 타 지역 희망학교도 참여하는 화합의 장이 펼쳐진다.

무작위로 팀을 나눈 후 퀴즈와 창업 상식 골든벨로 서로의 마음을 열고 협동을 통해 시제품을 완성하며 도미노블럭을 활용한 팀워크 게임으로 한 마음이 되는, 행사의 모든 과정이 '같이의 가치'를 배우는 활동으로 구성된다.

또한, 교사들도 상호 의견 교차를 통해 운영 개선사항에 대해 토의하고 열린 특강을 통해 마음 나눔 활동이 진행되는 등 교사 간 소통과 네트워크 창구도 마련된다.

김광재 청장은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은 예비 CEO로서 기반을 다지는 물론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배울 것이며, 교사들은 청소년들의 사업 인목을 키워주는 역량이 향상될 것이다"며, "제품을 직접 고안, 제작하고, 투자를 받아 창업에 성공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한 청소년들은 어려운 지역 경제에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배후관(063-210-6443)에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전개공, 혁신도시 단독주택·근생·주차장·의료용지 공급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는 혁신도시(이서)내, 단독주택용지 5필지, 근린생활용지 1필지, 주차장 1필지, 의료시설용지 1필지를 공급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공급되는 토지는 장기연체로 인해 해약된 토지로서 공급규모는 4819.9㎡로, 공급금액은 단독주택용지(5필지/328.5~390.1㎡) 1억2400만원~1억4800만원, 근린생활시설용지(1필지/550.9㎡) 4억6100만원, 주차장(1필지/889.2㎡) 2억2900만원, 의료시설용지(1필지/1,561.7㎡) 16억8600만원으로 의료시설용지는 추첨으로 그 외 토지는 최고가 입찰을 통해 공급한다고 밝혔다.

단독주택용지는 주거전용으로 건폐율 60%, 용적율 180%, 최고층수 3층이 적용, 근린생활용지는 건폐율 60%, 용적율 300%, 최고층수 5층,

주차장용지는 건폐율 70%, 용적율 210%, 최고층수 3층, 의료시설용지는 건폐율 50%, 용적율 250%, 최고층수 5층이 적용된다.

공급일정은 8월 27일 분양신청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접수받아 8월 28일 개찰을 통해 공급 할 예정이다.

계약체결은 9월 3일부터 4일까지(2

일간) 진행된다. 또한, 공급에서 유찰(최고가입찰 토지만 해당)된 토지가 발생할 경우 8월 29일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토지공급분과 별도로 전북혁신도시 내 종교용지 및 클러스터용지 일부를 수의계약을 통해 공급하고 있으며, 분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www.jbdc.co.kr) 참고, 공급할 사항은 063-280-7425(보상분양파트)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이스타항공, 탑승기간 확대 출발입막이가 이벤트 오픈

15일까지 국제선 29개 노선 대상

이스타항공이 탑승기간이 확대된 출발 입막이가 이벤트 '지금 이스타 이팅(it's timing)'을 지난 9일 오픈하여 8월 15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한다.

해당 이벤트를 통해 9일부터 9월 12일까지 탑승가능한 국제선 29개 노선의 항공권을 예약할 수 있다.

이스타항공의 이스타이밍 이벤트는 매달 두 번째 금요일마다 진행되는 고정 특가 이벤트로 출발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국제선 항공권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 할 수 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이스타이밍 이벤트부터 당일 탈까지 출발 가능한 탑승기간을 다음달 이스타이밍 시작 전까지 예약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고 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이스타항공 홈페이지(www.eastarjet.com) 및 모바일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월동배추, 저장기간 늘려 봄부터 여름까지 맛본다

농진청, 팻릿 단위 기체조성 포장기술 개발



지난 9일 농촌진흥청 농업공학부에서 열린 월동배추 장기 저장기술 현장평가회.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16주 가량이던 월동배추의 저장 기간을 24주까지 늘릴 수 있는 팻릿 단위 기체조성(MA) 포장 기술을 개발했다.

배추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채소 중 하나다. 특히, 달고 시원해 김치로 많이 먹는 월동배추를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장기 저장 기술 개발이 요구돼 왔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기존 배추 저장 시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 비닐덮개를 이용하던 것과 달리 완전히 밀폐해 호흡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이 기술을 딸기에 적용해 수출용 딸기의 신선도를 향상시키기도 했다.

실험에 사용된 배추는 올해 1월 수확한 월동배추로, 팻릿 단위로 MA 포장을 적용해 저온저장고(2℃)에 24주간 저장했다. 그 결과, 팻릿 MA 포

장을 적용한 경우 배추의 호흡에 의한 내부 기체 조성은 산소 2~6%, 이산화탄소 17~22%로 안정화됐다.

기존 비닐덮개만 씌우는 방식은 중량이 줄면서 당이 농축돼 초기 당도는 오르지만 부패가 진행되면서 당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반면, MA 포장 배추는 2주까지 통계적인 차이 없이 유지됐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배추뿐만 아니라 시금치 등 다른 엽채류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산업체와 연구 중이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9일 농촌진흥청

농업공학부에서 열린 현장연사회에서 월동배추 장기 저장 기술에 대한 연구성과를 소개해 농업인 등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

성재훈 수확후관리공학과장은 "MA 포장은 큰 비용 투자 없이 농산물의 저장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술이므로 안정적인 기체와 습도 조성 관련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라며, "학계, 산업체 등과 협력해 국민에게 언제나 최상의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저장 기술을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농식품부·aT, ‘국민생각함’ 통해 로컬푸드 키워드 수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로컬푸드의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14일까지 키워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6월 농식품부가 발표한 로컬푸드 확산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aT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민들이 공감하는 로컬푸드 가치 확산 홍보 캠페인 슬로건을 만들 계획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하려면 로컬푸드에 대한 20가지 키워드 중에 자신이 생각하는 로컬푸드 키워드를 3개

선택하고, 선택한 키워드로 ‘로컬푸드는 00이다’라는 한줄 생각을 완성하면 된다.

오는 14일까지 국민생각함(kimnagok)이나 바로정보(www.baroinfo.com) 사이트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50명을 추첨해 로컬푸드 꾸러미 상품을 증정한다.

정성남 aT 유통이사는 “막거리에 있어서 국민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공사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 가까이에서 이런 역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이 어려운 우리 기업을 응원합니다”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에 최대 1.5%p 우대금리 기업성공대출 출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성장을 돕고, 화이트리스트 명단 제외로 피해가 예상되는 우리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대출금리와 상환조건을 우대하는 특화상품 'NH기업성공대출'을 오늘 출시한다고 밝혔다.



'NH기업성공대출'은 총한도 3조원 규모로 소재·부품 전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운전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거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외는 별도로 최대 1.0%p 특별 우대금리(거래실적 포함 최대 1.5%p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할부상환의 경우 만기일시상환 비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하여 대출기간 중 상환부담을 줄임으로써 우리 기업의 금융비용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게 된다.

김장근 본부장은 “농협은행은 100% 순수 민족자본으로 이루어진 은행으로 우리 기업이 당면한 위기와 성공에

함께 하는 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NH농협은행은 지난 5일부터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중소기업·중견·대기업을 대상으로 만기연장과 최대 12개월 할부상환금 유예, 0.3%p 특별 우대금리 등도 지원하고 있다.

본 상품의 세부내용 및 대출신청, 지원책 등의 자세한 사항은 전국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